

石油 수급최적화와 정책요소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 에너지에 관한 예측의 결과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앞을 내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요예측만 보더라도 근래에 나타난 것과 같은 급속한 감소를 예상한 예는 적었으며, 또한 原油가격전망에 있어서도 그토록 단시일내에 상승했다가 다시 급속히 하락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또 지난 8월 5일에 끝난 제78차 OPEC(石油輸出國機構)총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인 전망은 이번 총회에서 國別산유량감축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OPEC는 비록 2개월간의 잠정적 조치는 하지만, 산유량 대폭감축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석유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油價에 관한 전망이 그대로의中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油價에 관해 가장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不確實하다는 말뿐』이라는 역설적인名言까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는 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국내부존자원의 빈곤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향상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거의 全量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때문에 세계에너지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에 대한 에너지부문의 기여요인을 극대화하고, 저해요인을 극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에너지경제의 현실을 푸는 열쇠라 할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 불안을 거듭해 오던 세계에너지 정세는 지난 82년을 고비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중 국제원유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原油도입 평균단가는 지난 1월의 배럴당 25달러39센트에서 7월에는 10달러5센트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초 제78차 OPEC총회의 산유량 대폭감축합의를 고비로 油價의 하락세는 일단 진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OPEC의 산유량 감축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제석유정세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정부와 기업은 油價하락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우리로서 가져야 할 시각은 이를 단순한 原油가격의 변화라는 시점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석유위기 이후의 석유정제와 세계 경제 및 각국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세계석유시장은 구조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석유소비의 감퇴와 석유계약으로부터의 탈피이다. 에너지소비절약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전환등으로 세계경제는 石油제약으로부터 탈피하고 있다.

둘째,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이다. 국제석유시장은 현물시장과 先物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원유수입국의 리스크해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이 석유제품가격과 수급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장원리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셋째, 상품성격의 변화이다. 원유는 종래의 정제상품, 특수상품에서 이

제는 일반상품, 금융상품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원유는 지난 1920년대말의 국제石油카르텔 결성 이후 반세기만에 중대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격동하는 석유정제하에서 에너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석유의존도의 감축으로 요약되는 「脫石油정책」은 石油가 궁극적으로 유한자원이며, 또 장기적으로 高油價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지난 70년대 초 로마클럽에 의한 자원한계론은 삼시간에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石油 가채년수 30년」과 같은 통계제

시는 「지한부 인생」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미 그 연한이 지났어도 石油는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지하자원은 메마르지 않고 있다. 자원이 저절로 불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의 기술 개발능력을 無變數(콘스탄트)로 놓고 계산하면 자연자원은 유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첨단과학은 무한한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자원개발능력도 그에 따라 물속으로, 땅속으로, 아니면 실험실의 유리관속에서 무한히 뻗어가고 있다. 실로 인류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자원의 유한이 아니라, 인간능력의 한계가 아닐까.

또 原油가격만 해도 그렇다. 원유가격은 제2차 석유위기 이후 한때 배럴당 40달러선까지 치솟았고, 80년대말까지는 100달러 수준까지 폭등할 것이라고 끔찍스러운 예측들이 세계를 떨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油價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11~13달러 수준에서 波動하고 있다. 그동안 하락을 거듭했던 油價는 일단 회복국면으로 되돌아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소폭에 그칠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아직도 제3차 석유위기의 가능성은 尙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70년대와같

□漫評□

배보다 배꼽이 큰 석유사업기금



은 비관론속에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견지해온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低油價시대일수록 에너지소비절약의 허리끈을 더욱 조여서 앞으로의 油價 재반등에 대비해야 하겠다는 정책의 논리와 의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高油價가 필연적인 石油에의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低油價추세속에서 종래와 같은 경직적인 脫石油정책의 추진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미 他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석

유수요를 자극하는 위험한 조짐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원유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石油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되었다. 최근 日本에너지경제연구소가 경합분기 가격을 기준으로 에너지源간의 가격경쟁력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石油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發電부문에 있어서 石油은 아직 원자력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나, 石炭이나 LNG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石油은 석탄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앞으로 현재와 같은 低油價가 지속될 경우 石油로의 연료 재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그동안 값싼 石炭이나 LNG 등에 밀려 發電用 및 산업용 연료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던 B-C油 등이 다시 捲土重來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그들의 에너지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의 低油價추세와 소련의 체르노빌原電 사고를 계기로 선진국들은 에너지전략의 재검토를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종래의 석유 의존도 감축 일변도의 脫石油 정책에서 탈피, 정책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되찾고 있다.

EC (유럽공동체)가 지난 5월말에 발표한 EC12개 회원국의 에너지수급전망이나 유럽 최대의 원자력발전機器 메이커인 西獨의 KWU社가 실시한 체르노빌原電 사고가 西獨에너지정세에 미친 영향분석 등은 바로 이와같은 에너지정세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

겠다.

EC 위원회는 앞으로 油價가 회복된다해도 상당기간 低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오는 90년까지 石油 수요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던 중전의 예측을 수정, 90년에 가면 연간 3천5백만톤 내지 7천만톤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石炭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石油의 비중은 85년의 46%에서 90년에는 48%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원유가격이 어떻게 변동해 갈 것인가 하는 전망은 시장의 투기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격등락의 변동폭은 클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에너지가격체계의 핵심인 原油가격의 변동은 에너지투자나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는 시장원리와 계획성, 정책성의 最適믹스로 대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나 기업은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탄력성의 제고를 통해 정세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脫石油政策은 석유제품수요의 균형적 축소를 성취하기 보다는 특정연료, 즉 B-C油수요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脫B-C油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석유수급상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어 石油의 경쟁력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석유제품 수급구조상의 문제점은 에너지 부문 전체의 종합수급측면에서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

